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11일 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39호

땅굴속에 예비정부 만든 미국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9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지난 3월 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밝힌데 따르면 9.11사건이후 미국은 약 100명의 관리로 구성된 예비정부를 만들어서 워싱턴 외곽에서 비밀리에 가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비정부 관리들은 동부해안지대의 비밀장소에 파견되어 가족과 떨어진채 지하생활을 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말로 세상에 처음있는 기이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를 예비로 하나 더 두고 있다는 것도 기막힌 일이거니와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를 비밀리에 땅굴속에 두었다는 자체도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에 있어보지 못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난 것은 저들이 저지른 죄로 해서 산생된 모든 공포증의 당연한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과 고통의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혼란의 근거는 모두 미국이 조장하고 초래한 것이며 직접적인 개입으로 산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추겨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자행케하고 반정부적인국제테러분자들과 집단들에 자금과 무기를 대주면서 분쟁을 조장시키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레나다와 파나마, 이라크와 유고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 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로해서 미국은 지금 세계적인 공격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해외 미대사관들에 대한 연이은 폭탄공격과 미국 함선들에 대한 자폭공격, 지난해 미국에서 일어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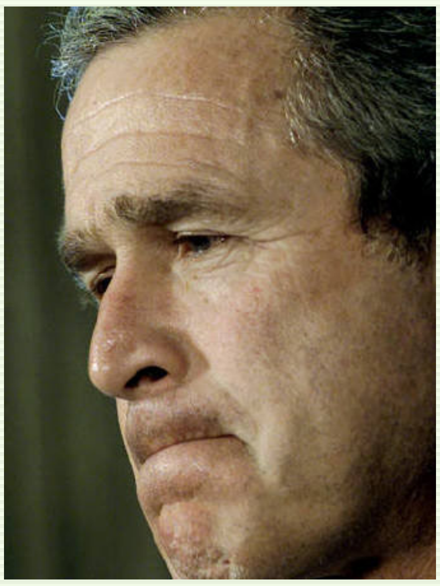
9.11기습사건 등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9.11사건을 계기로 미국정부는 물론 미국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 불안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치르고 있는 반정부인사색출과 2차 기습공격, 폭격 등으로 공항들과 항만들에 대한 검문검색소동이 일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이 세상에 없는 땅굴 예비정부를 비밀리에 가동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포증의 산물입니다. 죄를 지은 자의 피해망상증을 연상케하는 가련한 몰골이 아닐수 없습니다. 미국이 죄를 짓지 않고 떳떳히 처신했더라면 국제적 미움을 받을 것도 없고 예비정부라는 것도 만들어낼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미국이 유일 초대국의 체면도 잃고 세상에 없는 희비극을 연출할 정도라면 죄지은 자의 앞날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쯤은 이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미국이 땅굴속에 예비정부를 숨겨둔다고해서 무사하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미국이 저들의 죄가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용서를 빌지 않는 한 세계적인 공격을 절대로 피할수 없습니다.

미국은 세상에 없는 땅굴정부를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그대로 땅속에 묻혀 버리는 편이 더 나을듯 합니다.



9.11테러로 처참하게 무너진 미국방부건물

각국에서 6.15북남공동선언과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진행

조선중앙통신 주체91, 3월 9일

지난 2월 23일 체스꼬에서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개시 선포식이 있은데 이어 이 운동이 여러 나라로 확대되고 있다.

기네에서는 8만 5, 000여명의 근로자들과 공보일군들, 기자, 편집원들을 대표하여 기네전국근로자련맹 총서기 라비아뚜 쎄라 디알로와 기네전국공보위원회 위원장 에밀 톰빠빠, 기네신문 ≪호로야≫ 책임주필 이브라히마 쏘리 디엥이 서명문에 각각 수표하였다.

에티오피아에서는 1만 7, 000명의 국제태권도수련생 및 애호가들을 대표하여 남부지구 왈쏘국제태권도쎈터 지배인 하일데 모하메드와 샤스메네국제태권도쎈터 지배인 테스호메 베게나가 서명문에 각각 수표하였다.

또한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게오르기 쓰또야노브는 성명을 발표하고 2, 480명의 협회성원들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구국의 소리
1 땅굴속에 예비정부 만든 미국
1 각국에서 6.15북남공동선언과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진행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6)

세기와 더불어
4 4장 2절 준엄한 봄 (2)

칭송
5 백두산에 가신 의미
5 청년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문헌

6

한국민족민주전선
6 부시의 히스테리적 발작증
7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이회창
8 ≪국보법≫은 6.15공동선언실현의 암적 존재
8 악의 제국의 종말
8 구국의 소리 뉴스 - 주체91, 3월 9일

운동강좌
15 반전반미투쟁과 6.15실천투쟁의 결합 (2)

조선중앙통신
9 주체91, 3월 9일 보도
10 물지게군삯도 받지 못하는 일본 - 노동신문논평 3월 9일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청소년들을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

아리랑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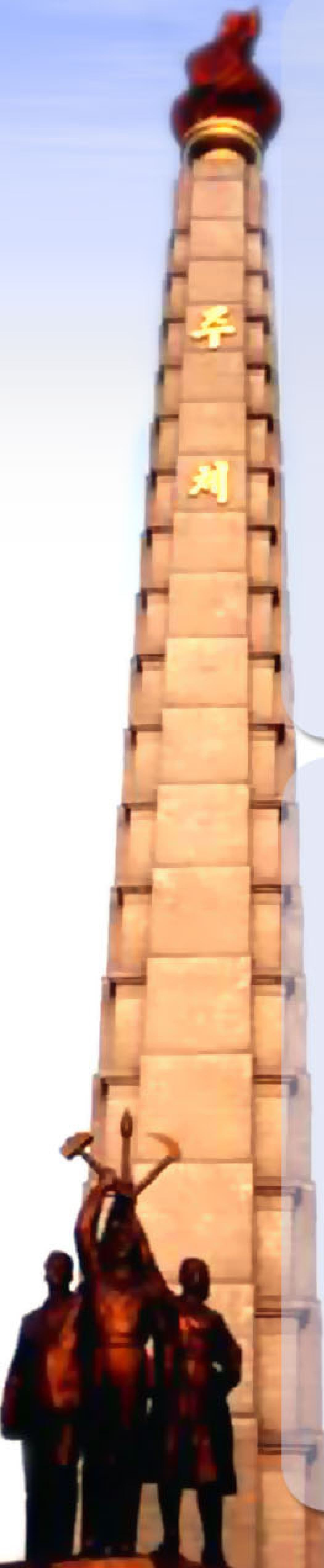
14

12 미, 실전사용 가능한 핵무기 추진
12 경찰 조계사 진입, 발전노조원 연행
12 반인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
13 지역주의정권 탄생되면 깡패 미국에 의한 전쟁 막을 수 없다 - 강정구교수인터뷰
14 민족민주진영도 선거대응에 만전을 기하자
14 금년 대선과 지자제선거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조국통일3대헌장
16 90년대 통일을 위한 전민족단합의 대헌장 (2)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6)

주체67(1978)년 11월 18일



지금 남조선에 미국장관들이 자주 드나드는데 박정희는 그들에게 돈도 찔러주고 기생들도 붙여주면서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하여서는 안된다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에게 매수당한 그들은 돌아가서 남조선에 가보니 ≪남침위협≫이 있다고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남침≫할 의사가 있었다면 왜 4. 19인민봉기 때같이 남조선정세가 복잡할 때 가만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시종일관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남조선에 공산주의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남침위협≫을 떠드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 민족은 두번다시 동족간의 유혈전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0년대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우리 나라가 무참히 파괴되었으며 우리는 전후 재더미속에서 오늘과 같은 훌륭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다시 전쟁에 의하여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제의 야수적 만행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빈 터위에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흘려 건설해놓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훌륭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북남적십자회담때 남조선에서 들어온 사람가운데 평양 보통강의 토성랑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옛날 자기네 집이 있던 자리에 가보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였는데 천리마거리와 보통강주변에 멋있게 꾸려진 공원을 보고는 대단히 놀라더라고 합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가 홍콩에 가서 어떤 사람과 담화하면서 ≪평양≫이라는 영화를 남조선사람들에게 보였다가는 큰일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는 현대적으로 잘 건설된 평양을 찍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를 남조선에서 돌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남조선측이 북남회담을 계속 지연시키다가 마지막에는 판문점에서 하자고 하였는데 그것은 북과 남이 내왕을 하면서 회담을 하면 남조선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였습니다.

북남적십자회담때 북반부에 들어오는 남조선기자들을 보면 매번 다른 기자들이였습니다. 한번 북반부에 왔다가면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하여 남조선≪중앙정보부≫에서 검열하는데 아마 조금씩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북남적십자회담때 북반부에 들어왔던 남조선기자들은 북에도 거지아이들이 많은가 하여 만년필과 학습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우리에게는 연필이 많으니 이따위것은 필요없다, 이것을 남조선에서 구두닦이하는 아이들에게나 갖다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학생들의 행동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적십자대표들이 남조선에 나가 어느 호텔에 들었는데 ≪보이≫라고 부르는, 호텔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구두도 닦아주겠다고 하고 옷도 다려주겠다고 하고 목욕할 때에도 들어와 봉사해주겠다고 하고 별의별 일을 다해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하고는 자체로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을 누구에게 시킬줄도 모릅니다.

남조선호텔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이 돈이 없어 돈을 아끼느라고 그렇게 하는줄 알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봉사를 받지 않고도 봉사료를 다 주자 매우 감탄하더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지 않는 사상으로 교양받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후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문이 서울의 여러 호텔들에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북조선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줄 알았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지 않으며 다 인자하다,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그이상 점잖은 사람들이 없더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에는 구두닦이를 하고 담배를 파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며 남대문시장에는 지게꾼이 요란하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남조선통치배들은 북남적십자회담때 서울에 있는 거지들을 다 어느 섬에 갖다 걷어넣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들이 물론 구라파의 일부 발전된 나라 사람들처럼 잘 산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보고는 다 놀랍니다. 조선에는 특별히 잘 입고 잘사는 사람이 없지만 못사는 사람도 없다, 지게꾼도 없고 구두닦이를 하거나 담배를 파는 아이들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아들을 다 학원에 보내어 부모가 데리고 있을 때보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면서 잘 교육교양하여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민족적 의무로 여깁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보아도 접대원들과 손님들이 다 점잖고 영화내용도 다 훌륭하며 텔레비전에도 다 건전한 내용만 소개된다,

사회도덕이 아주 건전하다고 탄복하면서 좋게 평가합니다.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조선에 가보니 카페도 없고 재즈춤 추는 곳도 없더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본을 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마약입니다. 미국사람들도 아마 미국사회가 부패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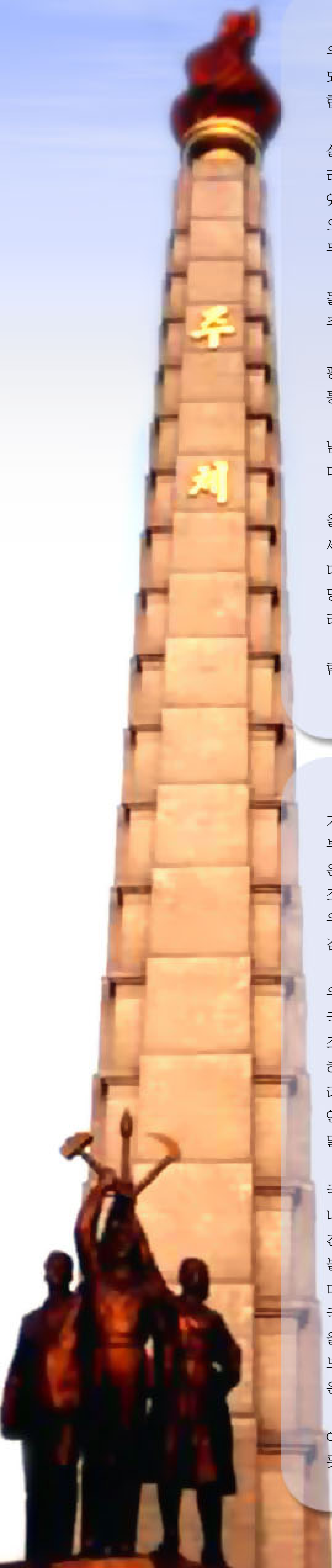
우리는 절대로 미국의 본을 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카페나 재즈춤을 추는 장소 대신에 극장과 영화관을 더 많이 짓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극장과 영화관이 없는데가 없으며 농촌리까지 다 구락부가 꾸려져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아야 청년들이 영화도 보고 예술소조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정치사상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매우 건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있는 조선동포들가운데 구두닦이를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못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거의 10만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조국에 데려왔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의 집에도 가보군하는데 그 집 아주머니들 보고 조국에서의 생활이 어떤가고 물으면 그들은 일본에 있을 때에는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못살게 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빠찡꼬 같은 것을 하여 돈을 좀 벌까 하면 투전을 하여 다 잃어버리고는 여자들의 가락지까지 빼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벌써 우리 남편이 교양개조되였습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제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조국에 와서 교양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일본사람이 될뻔하였는데 조국에 와서 우리 나라 말과 글을 배우고

→

우리는 하루빨리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누가 통일하겠습니까.



우리 나라 역사를 배우니 다 조선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고 누구나 근심걱정이 없이 행복을 누리는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건설하여놓았는데 민족끼리 싸울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구태여 남조선을 공산주의화해서는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통일이 되어도 남조선의 자본가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남조선에 공산주의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이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고 합니다.

전략적 의미로 보아서도 이제는 미국이 남조선을 포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의 군사분계선을 ≪반공방파제≫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세력이 부산까지 나오면 일본이 큰일 난다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지어 일본공명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인물들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이 분열되어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자고 합니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통제하면서 조선을 통째로 다 먹지는 못해도 절반땅이라도 먹어보자는 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일본을 추켜세워야 아시아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이용할 가치가 없어졌으며 자체의 전략적 견지에서 볼 때 남조선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이용할 필요가 없는 이상에는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 있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선사람들자체가 조선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미국, 일본, 소련과 중국을 다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인 정책을 실시하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로 독립한다고 하여도 미국과 주변나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미국과 주변나라들에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사람들, 특히 기자들이 우리 나라에 오겠다고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과 같이 ≪두개 조선≫정책을 쓰고 있는 조건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이기 곤난합니다.

그전에 미국 ≪뉴욕타임스≫기자 솔스베리가 우리 나라에 왔다간 일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공장에 가서 한 노동자를 만났는데 그는 남조선출신이였습니다. 솔스베리가 그에게 당신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는가, 나는 미국기자다, 무슨 할 말이 없는가고 하였습니다. 그 노동자는 당신이 미국기자인가, 나는 미국놈이라면 적개심이 북받친다, 미군이 왜 남조선에 있으면서 나가지 않는가, 미군이 남조선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내가 고향을 떠난지 20년이 되어와도 고향에 소식 한번 전하지 못한다, 저 그림을 보라, 나의 생각은 저 그림과 같다, 미국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그림은 미군 나가라는 구호가 있는 만화였습니다.

솔스베리는 남자들과 말해보아서는 재미없겠다고 생각하고 한 여성 노동자에게 갔습니다. 솔스베리는 그 여성 노동자에게 나는 미국기자인데 무슨 할 말이 없는가고 하자 그는 나는 미국놈들의 폭격에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되었다, 미국놈들은 나의 철천지원쑤이다, 미국놈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솔스베리의 감정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일군들에게 우리가 미국사람이나 기자들을 받아도 미국사람들이 남조선에서 나가겠다고 하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여 조미관계가 좀 나아졌다고 할 때 우리 사람들을 교양해서 미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한 다음에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형편에서는 우리 조선사람들이 미국사람들을 만나면 감정이 좋을 수 없습니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지 않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미군 나가라는 구호를 써붙이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인민들의 반미감정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기자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며 북조선에 가보니 반미일색이더라고 글을 쓰게 될 것은 뻔합니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바로 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여야 하며 하루빨리 그릇된 대조선정책을 시정하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미국을 좋은 벗으로 생각하고 우호적으로 대하게 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가 좋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사람들가운데 조선의 현실을 바로 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오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폐쇄된 나라≫라고 자꾸 헐뜯는데 우리 나라에 와서 한번 보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현실도 보이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비롯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해주려고 합니다.

미국사람들도 윌슨의 시대에 ≪민족자결론≫이요 뭐요 하면서 많이 부르짖었는데 왜 남의 나라의 자결권을 짓밟으려고 하는가, 왜 남조선군사파쇼독재자들을 내세워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게 하는가, 남조선인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집권한다면 그가 누구든 사상과 정견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손잡을 것이라고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통일된다면 그 어느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미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는데 대하여 이야기해주려고 합니다.

선생이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잘 해설하면 미국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에 큰 도움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누가 통일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최동오선생을 만난 심정에서 선생에게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앞으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투쟁해나갑시다.

나는 선생이 미국에 돌아가서도 자기 조국을 굳게 믿고 어떻게 하나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기 바랍니다.

(끝)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2. 준엄한 봄 (2)

고재봉

나는 사도황구에 머무르는 기간 고재봉, 고재룡 동무들을 도와 소년탐험대와 농민동맹, 반일부녀회를 무어주는 한편 동남만각지에 널려있는 혁명조직성원들과 련계를 짓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재봉을 통해 룡정, 화룡, 길림의 련락소에 보낸 나의 편지를 받고 김혁, 차광수, 계영춘, 채수항, 김중권 등 10여명의 동무들이 사도황구로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지휘성원이였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동만을 뒤흔들고 있는 폭동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폭동의 주력을 담당한 것이 바로 만주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사람들이였고 그들을 폭동에로 선동하고 인도한 것이 한빈, 박윤세와 같은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중국당에 전당하려면 실천투쟁에서 공로를 세워 그 당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폭동에 궐기하라고 호소하였다.

당시로 말하면 동북지방에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국제당의 1국1당원칙에 따라 당재건운동을 포기하고 중국당에 적을 옮기기 위한 공작을 맹렬하게 벌이고 있을 때였다.

중국당에서도 실천투쟁을 통한 검열과 개별적인 심의를 거쳐 개인의 자격으로서만 당에 들어올 수 있다는 원칙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하였다. 이런 때에 국제당에서 내려온 사람들까지 폭동을 선동하며 돌아다녔기때문에 중국당에 전당하려고 탐위적 목적을 앞세우면서 인민들을 무모한 폭동에로 내몰았다. 그들은 청산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까지도 청산하였고 지어는 학교와 발전소에까지 불을 질렀다.

5.30폭동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중국의 반동군벌들로 하여금 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과 반일애국투쟁을 탄압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주었다. 류치장과 감옥들은 모두 폭동군중으로 차고 넘치었다. 수많은 폭동관계자들이 조선으로 압송되었다. 그들은 서울에 끌려가서 모두 극형과 중형을 언도받았다.

봉천군벌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간계에 넘어가 폭동군중을 잔인하게 탄압하였다. 일제는 조중인민들사이의 리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선사람들이 동만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군벌의 우두머리들은 그 선전을 그래도 곧이듣고 조선사람들은 공산당이며 공산당은 일제놈의 앞잡이기때문에 모두 죽여야한다고 하면서 폭동군중을 닥치는대로 살해하였다. 우둔한 군벌은 공산주의자와 일제의 앞잡이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

5.30폭동기간에 체포되고 살해된 사람들은 실로 수천명에 달하였는데 그 대다수가 조선사람이였다. 피검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였다. 폭동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조직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폭동을 계기로 조선사람들과 중국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몹시 나빠졌다.

리립삼로선은 훗날 중국당내에서 ≪망동주의로선≫, ≪소부르죠아적 광증≫으로 평가되었다. 리립삼의 쏘베트홍군로선은 동북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는 모험주의적 로선이였다.

그해 9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리립삼의 좌경모험주의로선을 심각히 비판하였다. 국제당에서도 ≪11월 16일부 서한≫을 통하여 리립삼의 좌경모험주의적 오류를 비판하였다.

우리도 1931년 5월의 봄 명월구회의에서 리립삼로선을 비판하고 좌경모험주의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리립삼의 좌경모험주의의 해독은 그후에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여러해동안 동북일대의 혁명투쟁에 영향을 주었다.

사도황구에 모여온 청년들은 ≪조선민족의 피가 아깝다.≫고 통탄하였고 ≪우리 혁명이 언제까지나 이런 혼동 속을 헤매야 하겠는가≫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와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폭동의 후과가 큰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후과가 크다고 한탄만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탄은 그만하고 각지에 나가서 조직을 복구하며 뒤수습을 해야겠다. 중요한 것은 종파분자들의 야욕을 발가내고 군중을 그들의 영향에서 떼내는 것이다. 그러자면 그들에게 조선혁명의 진로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폭동은 비록 류혈로 끝났지만 군중은 그 과정을 통해 크게 단련되고 각성되였을 것이다. 조선민족은 이번 폭동을 통해 전투력과 혁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나는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하고 헌신적인 투쟁정신에서 크나큰 힘을 얻었다. 이런 인민에게 과학적인 투쟁방법과 전술을 가르쳐주고 민족이 나아갈 진로를 밝혀준다면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동무들은 이런 호소를 듣고도 별로 큰 자극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한별동무의 말이 옳다. 그런데 대중을 공감시킬만한 새 진로가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답답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 로선을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서 섬겨바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만들어야 한다. 내가 옥중에서 생각해 둔 것이 있는데 동무들의 의견을 듣고싶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차광수, 김혁, 박소심 등과 이미 토론한 바 있는 조선혁명의 로선상 문제를 내걸고 장시간에 걸치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것이 사도황구회의다. 이 회의에서도 내가 제출한 안은 동무들의 지지를 받았다.

동만의 방방곡곡에서 빚어진 참혹한 류혈을 나를 다시한번 흥분시키고 각성시키었다. 나는 이 통탄의 한복판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어떻게 하면 조선의 혁명군중을 피바다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을 역경에서 건져내고 승승장구하는 혁명에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줄곧 하였다.

혁명은 무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잘 조직되고 훈련된 혁명군대와 인민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2천만을 승리의 길로 향도할 수 있는 강령과 그 강령을 집행할 수 있는 정치적 참모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외의 정세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국과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성전에서 전환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전환이 없다면 우리 민족이 더 많은 류혈과 참화를 당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이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며 1930년 여름에 바로 이런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머리 속에 떠오르는 사색의 알맹이들을 목책에 쉬임없이 정리해주었다.

우리는 사도황구를 떠나는 조직성원들과 공작원들에게 맡은 임무를 시급히 끝낸 후 6월 하순에 카륜에서 다시 만날 곳을 굳게 약속하였다.

그후 돈화에서 길동지구당회의가 열리었다.

회의에서는 폭동에 대한 문제가 론의되었다. 파쟁분자들은 5.30폭동과 같은 폭동을 또 일으키려고 계획하였다. 나는 5.30폭동은 무모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그들의 계획을 반대하였다.

그해 봄 나는 옥중생활에 이어 5.30폭동까지 겪으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였다.

참으로 나의 일생에서 1930년의 봄은 잊을 수 없는 성장의 봄, 시련의 봄이였다.

이 봄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였다.

(끝)

명월구회의가 진행된 곳

돈화거리

송시

백두산에 가신 의미

구국전선 주체89(2000)년

여기 서울에서
우리 어이 다 알 수 있었으랴
지난해 초
김정일장군님의 백두산행
그 깊은 의미를

그것이 단지
항일전적지에 대한 시찰이었더냐
대홍단군 농장에 대한 실무지도였더냐
아니면 백두산아들의
그리운 고향행이었더냐

20세기 마지막 해
지구를 들었다 놓은
충격적인 사변들을 목격하며
새롭게 찾은 진리가 있어

그때 분명 우리 장군님
우주를 진감하는
백두산의 눈보라
두팔 벌려 호흡하시어

대국들을 휘어잡을
자주의 폭풍으로 간직하셨으리라
백두산 해돋이에 밝아올
통일시간표를 산출하셨으리라

겨레의 가슴에
역사의 화폭으로 간직된
감동의 평양상봉이여
통일을 알리는 뇌성과도 같은
남북공동선언의 발표여
이를 청신호로 서방에서 동방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이나 하듯
평양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여

평양의 위상
이북의 존엄은
하늘 위에 하늘같은
백두산의 높이에서 빛발쳤으니
오, 이것은 민족의 성산
백두산마루를 작전대삼아
김정일장군님 화살표 그어주신
백두산작전의 쾌승이 아닌가!

55년과 2박 3일
꿈처럼 왔다간 2박 3일
다시 또 왔으면 2박 3일
평양의 푸른 6월의 그 2박 3일

남북정상만남의 2박 3일
시간으로 따지면 54시간
허나 감동의 폭발은
실로 메가톤급이었어

어쩌면 그렇게도 인자하실까
어쩌면 그렇게도 출중하실까
어쩌면 그렇게도 대범하실까
위인의 풍모에 취하여
온 남도가 확 끌렸어

그럴 수 밖에
태양의 거룩함은
일출의 순간에 벌써 다 알리는 법
천출위인의 실상을 알기엔
2박 3일, 그것만으로도 넉넉해

7천만을 열광시킨 2박 3일
60억을 경탄시킨 2박 3일
김정일장군님의 2박 3일은
역사의 한점, 세기의 한 순간
허나 장장 55년 분단의 긴 세월도
이루어내지 못한 통일교각을
한 순간에 겨레앞에 우뚝 올려 세웠어

흠모

청년들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귀중한 문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를 루마니아정치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루마니아정치출판사 사장은 단행본출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최근에 우리 정치출판사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작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를 출판하였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알린다. 나는 이번에 출판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작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선물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기회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우리 출판사를 대표하여 제가 드리는 편지를 전하여 드릴 것을 부탁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작은 우리 독자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귀중한 문헌이다.

수령의 전사들인 우리들은 두 나라 영도자동지들의 노작을 호상 출판하는 사업을 통하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현 시기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두 나라 영도자동지들의 노작을 호상 출판하는 것은 사회주의 원칙과 혁명적 신념을 끝까지 지키려는 두 당의 공동의 입장을 두터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업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주체사상가나전국연구소 청년구락부지부 성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사상가나전국연구소 청년구락부지부 성원들인 우리들은 당신의 고전적 노작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발표 1돌이 되는 뜻깊은 기회에 이 노작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진행하고 당신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자주시대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귀중한 문헌을 발표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연구토론회를 통하여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노작은 현시대에 역행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미래의 주인들인 우리 청년들에게 자기 앞에 나서는 숭고한 임무가 무엇인가를 명철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귀중한 교과서를 더욱 깊이 연구학습하며 주체사상의 신봉자, 선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번영과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부시의 히스테리적 발작증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7일~9일

지금 부시는 미국에 추종하는 나라는 자기편으로 미국에 불복하는 나라는 적으로 세계를 자기의 기분에 따라 두편으로 갈라놓고 저들에게 불복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악의 축≫이니 뭐니하면서 온갖 호전적 악담을 다 퍼붓고 있는데요. 부시의 이같은 망동을 두고 국제사회는 전쟁 히스테리 발작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가 김철호씨의 글 ≪부시의 히스테리적 발작증≫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씨입니다.

최근 부시의 ≪악의 축≫ 망발과 관련해 이 땅에서는 물론 세계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세계와 유럽연합, 심지어 미국의 전대통령이였던 클린턴과 지미 카터 그리고 전 국무장관 올브라이트를 비롯한 미국내에서까지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독선적 망발로, 유치하고 비생산적인 발언으로 낙인하고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시의 비이성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당연한 평가이다.

부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데 이어 이른바 연두교서라는데서 이북과 이란, 이라크를 거들어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고 떠들어댔다.

1월 31일에 있은 지방유세연설에서는 대량파괴무기를 획책하려는 나라들에 대한 죄이니 뭐니하며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전세계를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이 기회를 보다 늘리겠다느니 하고 폭언했다. 부시의 이러한 발언은 저들의 마음에 들지않는 나라들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이며 9.11사건을 기회로 삼아 세계를 군사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소리이다. 인디언을 멸족시키고 아메리카를 타고 앉은 해적의 후예들만이 할수 있는 강도적 논리이다.

부시의 처사는 ≪성 조지≫전설의 주인공을 연상케한다.

혼자서 창을 들고 용을 물리친다는 ≪성조지≫전설은 이야기거리로써 흥미가 있다 하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시가 고도로 문명화되고 과학화된 21세기의 현대판 ≪성 조지≫로 묘사되었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일뿐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비이성적인 광증에 대한 야유이다.

프랑스 신문 ≪리베라 숑≫이 부시를 ≪성 조지 부시≫로 야유, 조롱한 것은 9.11사건이후 부시의 경거망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시의 행태는 이성을 떠난 히스테리적 광증에 불과하다. 부시는 다른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기에 앞서 세계평화를 유린하는 자기들의 악에 대해 먼저 되돌아봐야한다.

부시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졌다면 현재 테러공격의 화살이 왜 미국으로만 쏠리고 있고 왜 부시의 집권시기에 와서 극심해졌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과 침략책동, 모략과 군사적인 테러행위를 자행한 것으로해서 세계평화의 유린자, 테러의 왕초로 공인되고 있다. 특히 부시행정부 출범이후에 극단적인 반평화행위는 세인을 분격케했다.

9.11사건은 그 결과로 초래된 것이다. 부시는 9.11사건에서 응분의 교훈을 찾아야했다. 그러나 부시는 무근거한 아프간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대테러를 또다시 자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문제를 구실로 ≪악의 축≫이라는 악담까지 써가며 세계적 판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방대한 핵무기와 미사일로 세계의 모든 지역을 겨냥하고 인류에게 항시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위협하고 있는 최대의 불량배국가, 테러국가이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최대개발보유국이고 그 전파자이며 실제 그 사용으로 인류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주고 있는 장본인이다. 미국은 최대대량살상무기인 핵탄두만도 근 2만개나 비축하고 있을뿐 아니라 세계도처에 전개해놓고 세계를 위협공갈하고 있다. 이 땅에만도 1천여개의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핵무기가 전개되어 이북과 아시아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실제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은 또한 이미 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을 떨구어 수십만의 도시주민들을 학살하고 도시를 황폐화시킨 인류최초의 핵전범국이다.

국제적인 포괄적핵금지조약, 생물무기협정들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일방적인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나라도 미국이다. 또 최근에는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정책을 바꾸기로 하고 폐기하기로 된 핵탄두의 비축과 이른바 국가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으로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타당한 명분이 없는 군사적 행세는 국가테러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최신형 살인장비들과 수많은 병력을 집결해놓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무력행사로 세계평화를 유린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그레나다와 파나마, 이라크와 유고 등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공으로 엄청난 재난을 초래한 사실은 그 한 사례이다.

미국은 세계 테러집단들과 테러분자들에 대한 최대의 지원국이다. 세계 분쟁지역들에서는 의연 미국이 제공한 무기들에 의해 테러와 살육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반정부집단들과 테러단체들에 자금과 무기를 대주고 있으며 대결과 분쟁을 조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세계적인 테러분자들의 집결처이며 안식처이다.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주에는 쿠바정부를 반대해 테러로 악명을 날린 자들과 수백수천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체포, 고문, 학살한 과테말라의 전 국방장관 엑토르, 살바도르 전 군참모장 호세 가르시아, 전 아이티내무장관 룩스 카미로니, 전 칠레정보국 밀정인 아르만도 라레유스 등 세계적인 테러두목들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 악당들을 특별비행기까지 띄워 미국으로 빼돌렸으며 영웅으로 내세우면서 자금과 테러훈련기지를 제공하는 등 국제적 테러를 조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행되는 모든 테러행위의 범인이다.

미국은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켰으며 6.25북침전쟁을 통해 수백만의 우리 민족을 학살한 최대의 테러국이다. 또 수천명의 광주시민을 살육케하고 우리 여성들에 대한 강간, 살인, 폭행 등 주한미군에 의해 연일 저질러지고 있는 테러행위는 그 얼마인가.

현시기 좋게 발전하던 남북의 화해와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한반도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것은 부시의 극단한 대북강경책동에 기인한 반평화, 반통일테러행위이다. 미국은 바로 세계 테러의 원흉이며 악의 화신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악의 축≫이니 뭐니하며 군사적 강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하고 오만방자한 행위인 동시에 초보적인 이성마저 잃은 정치적 미숙아, 분별잃은 광신자의 히스테리적 발작증이라 하겠다.

정신적 히스테리는 저능아의 발상이다. 세계가 3점짜리 저능아인 부시의 광증에 우롱당하는 것은 용납될수 없다. 분별잃은 광신자의 망동을 그냥 놔두면 엄청난 화를 당할수 있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부시의 히스테리적 망동은 단호히 저지돼야한다.

지구상에 발생하는 온갖 악의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데요. 그러한 미국이 감히 다른 나라에 대해 ≪악의 축≫이요 뭐요 하는건 강도의 논리라고 할겁니다. 밝은 하늘아래서 강도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부시호전집단은 알아야 할겁니다.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이회창은 1차 퇴출대상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7일~9일

지금 항간에서는 이회창의 얄팍한 웃음뒤에는 언제나 무서운 흉심이 깔려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반민족 역적질만을 일삼고 있는 이회창에 대한 정평이라고 할겁니다. 오일씨 모시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각계 민중들속에서 한나라당총재인 이회창에 대한 비난과 지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는 앞에서는 입에 침발린 소리를 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언동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오 일 :지금 우리 민중의 민족자주통일열기는 비상히 높아지고 있지만 이회창은 각계 민중의 비등된 자주민주통일열기를 거세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어요. 특히 그는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돌아앉아서는 자기의 흉심을 드러내고 있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죠.

사회자 : 말하자면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격인데요. 그럼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까요.

오 일 : 무엇보다 이회창이 대미추종과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악랄하게 일삼고 있는데 대해 먼저 얘기돼야한다고 보는군요. 아시다시피 최근 부시는 한국을 행각했을때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속에 없는 대화발언을 했잖아요. 그러자 이회창은 이에 적극 추종하면서 미국의 대화의지를 기대했다느니 지지한다느니 뭐니하며 아양을 떨었어요. 얼핏 들으면 이회창이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와 전혀 달라요. 부시가 대화발언을 했지만 그 뒤에 깔린 북측의 체제에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과 대량살상무기문제, 미사일문제 등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제창하면서 부시의 망발을 지지한 것은 결국 미국의 대북호전정책을 지지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이회창이 한반도긴장완화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라고 마구 떠들며 그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제넘는 소리를 했으니 그가 대화를 지지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회자 : 옳습니다. 그가 얼마전 미국을 행각할때도 한미간의 외교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다고 했지만 미국에 가서 한 언질은 결국 북을 심히 자극하고 미국의 비위를 맞춰주는 망언들뿐이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회창은 대권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미국에 빌붙어서 나라와 민족의 이익도 서슴없이 팔아먹는 추악한 친미사대매국노라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팎이 다른 언동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건 특히 남북관계문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오 일 : 이회창은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가 급격히 높아지고 그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외가 격찬하는 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악랄하게 헐뜯었고 그 이행을 차단하기 위해 별의별 못된 짓을 다했어요.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그처럼 기염을 토하던 이회창은 정작 이산가족들의 뜨거운 만남이 성사되자 그것을 외면하고 얼른 지방으로 도망가서 딴전을 피웠고 비전향장기수들의 북행길에는 깡패들을 동원해 길을 막고 차를 멈춰세우는 그런 망동을 부렸는가 하면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복원공사가 시작될 때에는 무슨 남침통로가 개설된다고 야단쳤죠. 지난해 8.15광복절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과 북, 해외 각계 대표들이 한 자리에 앉은 민족통일대축전이 마련되고 가장 성대한 통일축제가 성과리에 진행되자 돌출사건을 만들어 복작소동을 벌인 것은 그가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기 위해 얼마나 발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땅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신매카시즘소동을 일으킨 것도 이회창이고 남측의 무성의와 비도덕적 언행으로 모처럼 마련됐던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자 쾌재를 올리며 미쳐 날뛴 것도 바로 이회창이죠.

사회자 : 지난 대선때에도 그렇죠 이회창은 그때 남북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을 위해 금강산관광을 대선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퍼주기라는 감투를 씌우고 한사코 반대해 나서고 있어요. 결국 이회창은 앞에서는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분단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반통일분자라는 걸 실증해주는데요. 이회창은 민족자주와 통일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 민생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 일 : 전대미문의 파쇼악법으로 알려진 국가보안법철폐문제를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는데요. 이회창은 지난해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고조되고 여야의 많은 정치인들 특히 한나라당내에서까지 국가보안법개폐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오자 이미 국보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니 논의하겠다고 했고 그전해인 2000년 7월에도 국보법은 개정전후와 그후 남용의 소지는 어찌됐든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고 완화시킬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한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지난해 가뭄을 구실로 국가보안법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수 없어요. 가뭄과 국가보안법이 하등의 인연도 없거니와 설사 연관이 있다면 가뭄이 끝난 후에도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걸 보면 그에게 국가보안법을 문구하나 고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회창은 북을 걸고들면서 국보법철폐의 시기상조를 고창했고 남북관계의 이중적 구조를 운운하며 무장해제니 법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느니 뭐니했는가 하면 악법도 존중돼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아 사람들을 경악케했죠.

사회자 : 이회창이야말로 천하에 둘도없는 악법고수론자인데요.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될수 있지 않을까요.

오 일 : 이회창은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우선과 민생을 외치며 마치 여기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고 있어요. 그러나 이회창은 특정재벌들을 비호하고 살찌우는데만 집착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철면피하게 놀고 있는가 하는 건 지난해 5월 각계에서의 한나라당이 재벌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지향한다고 말한데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와 거의 동시에 발표된 한나라당의 세재개편방향에 많은 법안들을 내놓았지만 재벌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몇억원짜리 집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가진 자들을 더 배부르게 하는 잡조만 있었던거예요. 그런가하면 또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이 산적돼 있어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을때에는 한달동안이나 국회를 버리고 거리와 나와 무슨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뚱딴지같은 일을 벌어놓아 비난을 들었습니다.

사회자 : 이회창이 길가에서 노점상들과 악수를 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에 대한 병문안 등을 하는 것 등은 굳이 무슨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인기를 올려보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언젠가 지하철에서 한 가정주부가 쓸데없이 위세를 부리지 말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라고 면박을 주는 바람에 톡톡히 망신을 당한 건 결코 우연한게 아니죠.

민생문제는 그렇다치고 한국 정치의 악순환으로 되고 있는 지역정치와 인맥정치를 두고 이회창은 지난 국회전에서 아무런 **도 없다고 보는데요.

오 일 : 옳아요. 이회창은 평소에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지역주의, 지역을 볼모로 한 정치지역화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기만극이예요. 지난해 6월 한달사이에만도 이회창은 4차례나 충남지역을 찾아가 자기가 충남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지지표를 구걸했고 전주 이씨 종친회모임에서는 전주 이씨가 500년 동안 국가를 경영한 집단으로 비록 왕조는 끝났지만 정신적 지반은 있다면서 씨족감정을 고취해 대권야망을 실현하려는 흉심을 더욱 드러냈어요. 대권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추파를 던지는 이회창이기에 광주 망월동지역에 가서는 당시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민주주의 터를 닦은 광주시민에게 감사한다고 하면서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군사독재정권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미화분식하는 그런 이율배반적 행위를 자행했어요.

이것만 봐도 이회창이 얼마나 안팎이 다른 인면수심의 저능아인가 하는 것을 잘알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지금 한나라당내에서 이회창의 인맥들이 포진하고 있고 국가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사조직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앞에서는 귀맛 좋게 시끄러운 소리를 하고 실제로는 나라와 민족앞에 이루 헤아릴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회창을 고운 눈으로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각계 민중은 민족, 민중의 암적존재인 이회창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사회자 : 권력과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악한인 이회창을 절대로 권좌에 앉힐수 없죠. 이런 자에게 찍어주면 더큰 불행밖에 돌아올게 없습니다.

≪국보법≫은 6.15공동선언실현의 암적 존재

김광철 - 구국전선 주체91, 3월 1일

우리 민중은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자주적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확신하며 그 이행에 떨쳐나서게 되었다. 자주통일에로의 시대의 흐름은 오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유리한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에 유리한 법적,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구태의연하게 이북의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 민주단체들과 인사들을 ≪이적분자≫로 몰아 탄압, 처형하며 6.15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이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국보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의 각당, 각파, 각계층의 자유로운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며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는 파쇼악법이다. 이 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언제가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수 없고 민족의 통일염원에 맞게 남북사이의 접촉과 교류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다.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과거사는 ≪국보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개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보법≫은 파쇼독재시대, 반공대결시대의 유물이다. 시대는 달라져 21세기에 들어섰다. 남북사이에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 나가려는 겨레의 의지와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 민족에게 남북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보법≫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이다.

이 땅에서는 ≪국보법≫을 만능의 탄압도구로 써먹고 있다. ≪국보법≫을 턱에 걸고 동족인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것을 선언하고도 ≪국보법≫을 휘둘러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며 ≪국보법≫을 내걸고 동족을 반대하는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본질상 통일대화의 대방인 이북에 대한 배반이며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역행위이다.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이정표이다. 온 겨레는 공동선언실현에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국보법≫은 반북, 반통일대결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시대와 민족의 요구대로 반민족적이고 파쇼적인 반통일악법인 ≪국보법≫을 지체없이 철폐해야 한다. ≪국보법≫이 철폐되면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룩되게 될 것이다.

악의 제국의 종말

구국전선 주체91, 3월 1일

19세기 말 미국의 작가이며 기자였던 마크트웨인이 한 말이 있다. ≪미국을 발견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미국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마크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콜롬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 것은 큰 경사였다.

그러나 그 땅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었다. 세계 도처에서 미국에 의한 전쟁과 학살, 약탈이 끊기지 않았다. 200여년밖에 안되는 미국의 역사에는 110여차례의 크고작은 침략전쟁들이 기록되어 있다.

세계에는 나라들이 많지만 미국의 간섭이 뻗쳐있지 않은 나라, 미국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은 나라는 거의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미국에 의해 국토가 양단됐고 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탈냉전후 미국의 전횡은 더욱 우심해졌다.

주권국가의 자주권도, 국제법과 유엔헌장도 안중에 없는 미국의 횡포한 간섭과 침략으로 하여 어제는 중동의 이라크가 공습을 당하고 유럽이 전쟁마당으로 화했으며 오늘은 아프간이 참변을 당했다. 내일은 지구촌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참변이 빚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오죽했으면 유고공습이 끝난후 어느한 외신이 ≪미국이 없는 세계는 얼마나 평화로울 것인가≫고 야유했겠는가.

미국의 이러한 오만과 횡포에 세계가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의 ≪1극세계≫화를 반대하여 유럽이 미국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자주화의 기운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에 대한 대습격도 있었다. 미국의 성조기에 낙조가 비꼈다. 최근 러시아의 작가 유리 본다레브가 한 미국의 운명에 관한 예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악의 제국 미국은 수많은 경제적, 정치적 전제, 주로는 도덕적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21세기에 스스로 붕괴될 것이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9일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축전
방글라데시 다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축전이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진행된 2.16경축집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축전은 **김정일**영도자님께 그분의 탄신절에 즈음해 열렬한 축하를 드렸습니다.

축전은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하에 이북은 세기적인 낙후와 빈궁, 착취에서 벗어나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됐으며 이북 민중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중으로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전은 이북 민중이 **김정일**영도자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주위에 굳게 뭉쳐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전진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축전은 또 **김정일**영도자님의 정력적인 영도하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이북민중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축전은 **김정일**영도자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했습니다.

이북을 소개하는 글 발표
러시아 신문 ≪파트리오트≫

구소련 국방성이였던 드미뜨리 야조프원수가 러시아 신문 ≪파트리오트≫ 제6호에 ≪인간이 창조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북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서방식 문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과 민족적 전통이 살아있는 국가를 주체적으로 건설하고 계신다며 이북이야말로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위대성에 언급하고 영도자님께서는 민중들에게 새 세기의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저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 대해 소개하면서 영도자님께서 밝히신 주체의 학설과 그의 기본 원리는 러시아 민중들과 러시아 전통에도 부합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부당한 등록금인상 철회촉구
교육학생연대

서울대 등 전국대학총학생회들로 구성된 교육학생연대는 7일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대학은 부당한 등록금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사립대 재단은 전입금을 늘리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야한다며 각 대학이 연대해 등록금납부 마감시한인 3월말까지 등록금납부연기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등록금인상철회투쟁에 총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회창의 증여세포탈혐의 주장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회창이 지난 97년 대선이후 네차례이상 이사를 했지만 아파트전세 등의 재산변동을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척이 제공한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들어가면 임대료 4억7000만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출생한 이종재의 손자에 대해서도 시민권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기업민영화관련 시국선언
각계인사 988명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인사 988명은 10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파업사태로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간에 쫓겨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백낙청서울대교수, 문규현신부 등 각계 인사 988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성노동 3대 과제 이행촉구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노조는 8일 여성노동 3대 과제를 시급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여성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보호대책과 모성보호관련법준수, 가내노동자보호대책 등을 다음 정부에 넘기지말고 현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여성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이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11일

3.8국제부녀절 92돐 중앙보고회

3.8국제부녀절 92돐기념 중앙보고회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중린비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이 참가하였다.

조선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의 부인들과 외국녀성들이 보고회에 초대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박순희위원장은 기념보고에서 조선녀성운동이 백두산3대장군들에 의하여 빛나게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백두밀림에서 조선녀성들의 첫 혁명조직인 반일부녀회가 결성되여 주체적인 조선녀성운동의 시원이 열리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녀성들이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당과 국가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일군으로 일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창조적재능을 마음껏 꽃 피우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라나는 후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는것은 우리 녀성들이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성스러운 의무이라고 하면서 그는 모든 어머니들이 아들딸들을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결사옹위하는 열혈투사로 키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21세기에도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녀성들과의 친선과 련대성을 강화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누구나 직접 보아야 할 ≪아리랑≫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종합연습과정을 참관하기 위하여 중국 홍콩, 마카오 ≪아리랑≫관광고찰단이 조선을 방문하고 있다. 단장인 중국 광동(마카오)려유유한공사 총경리 좌위는 최근년간 우리는 대중보도수단들을 통하여 조선의 집단체조와 교예에 대하여 깊이 파악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조선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 진면모에 대해 다 알수 없다. 오늘 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일부 연습장면들을 직접 보았다. 매우 주도세밀하게 조직되고 세련된 기교로 충만된 희한한 장면들을 본 나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였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공연준비과정이 너무도 손색이 없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탄복하였다.

조선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누구나 직접 보아야 할 걸작품으로 되고 있다.

공연이 풍만하고도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무한대한 정력으로 강성대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시는 위대한 혁명가

≪로동신문≫ 9일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지칠줄 모르는 무한대한 정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 나가시는 위대한 정력가이시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정력적인 사색으로 조선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전략가이시라고 하면서 그이의 사색은 마를줄 모르는 강줄기와도 같이 정지와 답보를 모르는 열정적인 사색, 낮과 밤의 계선이 따로 없는 정력적인 사색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왕성한 정력은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시는데서와 불철주야로 분투하시며 나라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지지도는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령도방식이다.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현실에 들어 가 걸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는 방법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오늘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범위는 비상히 넓다.여기에는 당건설과 군건설,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조국통일과 대외관계 등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의 문제들이 다 포함되여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듯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다 관심하시며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느라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일하고 계신다.

론설은 혁명이 전진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왕성한 정력으로 숭고한 헌신의 자욱을 새겨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풍모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높은 사명감의 발현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군만행진상조사단 신천박물관 참관

미국 ≪평화를 위한 로병조직≫ 대표 브라이언 윌슨을 단장으로 하는 미군만행진상조사단이 8일 신천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조사단성원들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조선인민을 학살하는 죄악을 저지른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살인만행을 보여주는 증거물들과 직관물들을 돌아 보았다. 그들은 전 신천군당 방공호, 원암리화약창고와 400어머니묘, 102어린이묘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 보면서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살륙만행의 진상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단 단장은 신천박물관은 미군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에 대해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자기 병사들이 조선에서 감행한 만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이어 조사단성원들은 미제침략군에 의해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강요 당한 전쟁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민선홍, 최경녀, 정근성, 리인화는 미제침략군에 의하여 혈육들이 무참히 학살당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배 고파 우는 어린 이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수류탄을 던진 미군이야말로 두 발 가진 승냥이, 살인귀들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한다 해도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응당 조선인민에게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윤문, 주상원은 신천땅에 기여든 미제살인귀들이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 가두고 잔인한 방법으로 무참히 죽인데 대하여 사실자료들을 들어 가면서 구체적으로 까밝히였다.

그들은 조사단성원들이 이 땅에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만행을 면밀히 조사확증하고 이를 세계면전에 낱낱이 고발하고 단죄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세계적으로 규탄받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세계적으로 규탄받고 있다.

따쥐끼스딴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2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부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망발하였으며 조선의 정치체제의 변경에 대해 줴쳤다고 하면서 이것은 자주적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당당한 유엔성원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지중해지역사회주의자조직 상설서기국은 1일 성명에서 부쉬의 망발은 미행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강경정책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종식시키지 않으려 한다는것을 보여 준다고 까밝혔다.

같은날 전인디아로조대회도 성명에서 부쉬의 망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당국자의 의도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악랄한가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그러면서 미국은 조선인민이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민족끼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인권을 위한 아프리카, 아시아 변호사련맹은 4일 성명에서 미국은 무모한 대조선강경정책과 전쟁위협으로 조선의 통일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책임을 인정하고 조선문제에 대한 간섭을 당장 중지하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인디아로조중앙 총서기 엠.케이.판데이는 2월 25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고 모든 유엔성원국들이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원칙들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할것을 유엔에 요구하였다.

단마르크의 인사 부쉬의 망발을 규탄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은 미국은 말로만 ≪랭전의 종식≫과 ≪긴장완화≫에 대하여 떠들고 있지 실지로는 랭전시대의 유물인 ≪힘의 정책≫에 계속 매여 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미국대통령 부쉬는 존엄높은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모해하다 못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 등의 갖은 악담을 늘어 놓았다.

부쉬의 망발은 완전히 날강도적인 론리이다.

진짜 테로의 원흉, 악의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것도 미국이고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며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침략하는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부쉬의 이 망언에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의 영상을 어떻게 하나 흐려 보려는 음흉한 정치적목적이 깔려 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조선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 지고 조선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데 겁을 먹은 미국은 이를 막아 보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 있다.

미국지배층은 이번 망발에 대하여 조선인민앞에 공식사죄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선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기본장애로 되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즉시 철수시키며 조선을 겨냥한 각종 전쟁연습과 도발행위들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물지게군삯도 받지 못하는 일본

로동신문 론평 주체91, 3월 9일

남의 물지게를 실컷 져주고도 보수 한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놓고 머저리라고 한다.

일본이 그렇게 되였다.

얼마전 미국방성은 저들의 ≪반테로전쟁≫을 지원한 26개 나라들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실수인지, 고의적인지 일본을 빼놓았다.

일본이 미국의 ≪반테로전쟁≫을 지원한것으로 말하면 명단에 첫번째로 올라야 할것이였다.

일본이 미국의 ≪반테로전쟁≫을 무조건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자위대≫함선들을 인디아양에 파견하여 미국군함들에 병참지원을 하는데서 최대의 열성을 발휘했다는것은 세상에 잘 알려 져 있다.

일본의 군사, 외교부문 관계자들은 미국상전의 눈에 들기 위해 일본만큼 ≪충성≫을 보인 나라는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나으리들은 일본을 ≪공헌명단≫에 조차 넣지 않았던것이다.

아마도 지원에 더 열성을 보이라는 신호인지 아니면 일본을 하대하는 미국의 태도인지는 명백치 않다. 일본으로서는 분통이 터질만도 한 일이였다.

일본이 대미지원에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가.

그래서인지 일본은 노발대발하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항의≫를 들이대는 등 일대 소동을 벌리였다.

그러자 미국은 ≪실수≫라느니, 사죄한다느니, 명단을 수정한다느니 하며 일본을 투정질하는 철부지아이 다루듯 하였다. 그러나 한번 쏟은 물은 주어 담을수 없는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일본이 대미지원에 그토록 열성을 보였는가.

그것은 일본이 세계의 면전에서 군사대국, 정치대국의 지위를 시위하고 미국의 후원으로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대렬에 들어 서기 위해서였다.

일본의 이번 ≪병참지원≫조치는 1991년 페르샤만전쟁때의 쓰라린 체험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때 일본은 미국을 위하여 130억딸라라는 가장 많은 액수의 전쟁비용을 제공하였으나 군사정치대국의 대접을 받지 못하였었다.

≪군사적공헌≫을 하지 않았다는것이 그 리유였다.

그것을 봉창할 기회를 노리던 일본은 미국의 ≪반테로전쟁≫이 시작되자 ≪군사적공헌≫을 인정 받기 위해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에 발 벗고 나선것이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얼마전에 일본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반테로전쟁≫에 대한 일본의 지원에 ≪사의≫를 표시하고 일본을 ≪미국의 최대의 가장 성실한 벗≫이라고 추어 올리였다.

부쉬의 찬양을 곧이곧대로 받아 들이고 엄지손가락을 내대며 자기 과신에 빠져있던 일본지배층에게 있어서 미국방성이 ≪공헌명단≫에서 일본을 빼놓은것은 마른 하늘의 벼락과 같은것이였다.

겉과 속이 다른것은 제국주의승냥이들의 공통된 특징이지만 이 점에서도 미국이 일본보다 한수 더 높은것이다.

작은 승냥이인 일본은 깜짝수에서는 제노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큰 승냥이인 미국의 음흉한 진속은 다는 알리가 없는것이다.

부쉬가 일본을 춰올린것은 앞으로 침략전쟁을 벌리는데서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우고 그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자는 타산에서 나온것이다.

다시말해서 일본으로부터 전쟁비용을 한껏 짜내고 위험한 전쟁마당에 총알받이로 일본군대를 더 많이 끌어 내자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군사정치대국으로 되여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차지하려는데 대해서는 강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일본이 상임리사국이 되면 미국의 고삐를 벗어 던지고 세계패권쟁탈에서 미국과 맞설수 있기때문이다.

미국은 진주만에서 일본의 기습공격을 당한 력사적인 실책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

일본을 최대한 리용은 하되 경계하라, 이것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기본립장이다. 한마디로 일본은 미국의 리용물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방성이 발표한 ≪공헌명단≫은 이것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공헌명단≫에 자기 이름이 빠진것이 마치 상전의 눈밖에 나서 몸값이 떨어 진것처럼 야단법석하고 있다.

까놓고 말해서 ≪공헌명단≫은 그 나라가 미국에 얼마나 고분고분 굽신거리는가 하는추종정도를 보여 주는 수치스러운 징표이다.

자존심이 있는 나라라면 거기에서 빠진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할것이다.

진짜로 일본의 몸값을 떨구는것은 수치스러운 ≪공헌명단≫에 이름이 빠진것을 두고 큰 변이나 난것처럼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리는 일본당국자들의 비굴한 대미추종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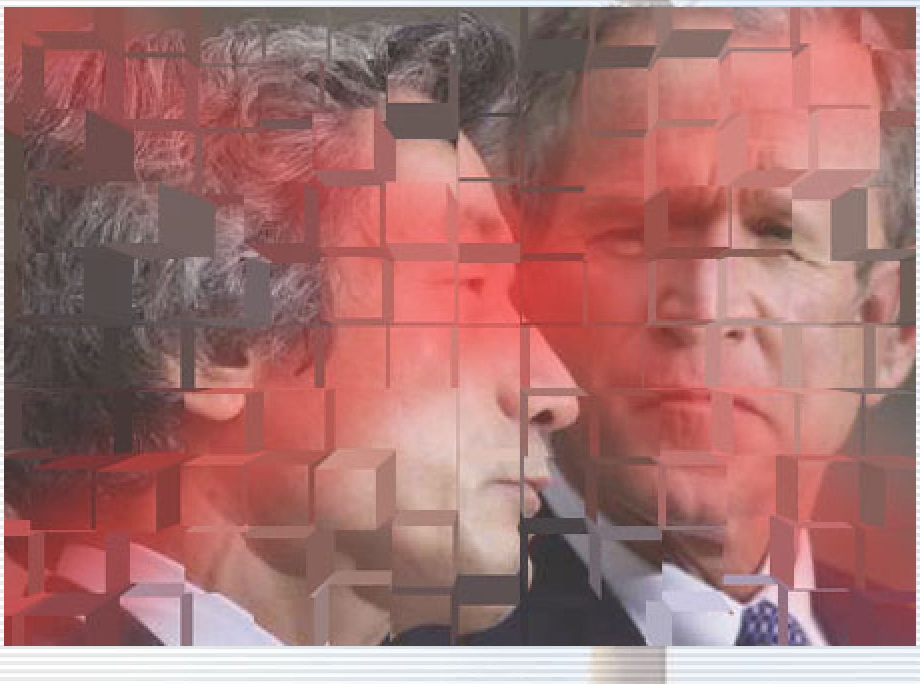
일본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던 나머지 미국이 흰것도 검다고 하면 그대로 되뇌이고 국제문제처리에서도 미국의 뒤꼬리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것이 체질화되였다.

부쉬의 ≪반테로전쟁≫확대정책과 ≪악의 축≫론은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을 드러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럽동맹국들까지 떨쳐나서 반대배격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를 무조건 전면적으로 지지협력하고 있는것은 세계에서 유독 일본뿐이다.

일본은 자기 나라가 주동이 되여 집행해야 할 국제협정인 ≪교또의정서≫에서 미국이 탈퇴한데 대해서도 격분은 커녕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



유럽동맹국들이 격분해서 미국 없이도 이 협정을 비준하고 실행하자고 들고 일어 난데 대하여 오히려 일본은 미국을 대신해서 이 나라들을 설복하는 변호인의 역을 노는 추태를 부리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은 응당 격분을 표시해야 할데서는 입을 다물고 미국에 대한 추종등급을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명단에서 빠진데 대해서는 분노해서 푸들거리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주대가 있고 민족적존엄이 있는 나라의 행동이라 하겠는가.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나라가 사대주의를 하면 골탕을 먹게 된다.

일본야당들과 사회계가 얼마나 수치와 모멸을 느꼈으면 미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절대복종≫, ≪비굴한 추종≫자세에 격분을 표시했겠는가.

일본이 미국의 ≪공헌명단≫에 첫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호전성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두번째라는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미국과 함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전쟁국가로 되였다.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는것은 스스로 화를 몰아 오는 재난의 길이다.

대미추종과 전쟁은 일본에 고립과 파멸밖에 가져 올것이 없다.

일본은 력사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평화와 자주의 길로 나가야 한다.

청소년들을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15회

림종수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9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 시간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청소년들을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혁명의 장래의 운명과 나라와 민족의 전도는 새로 자라나는 새세대들, 미래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청년중시사상의 기치 밑에 청년운동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면서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높이 모신 수령님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가장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선, 청년동맹을 위대한 존함으로 빛나는 청년전위부대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주체84(1995)년 1월 3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과 군대가 강하고 청년들이 강하면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는데 사로청의 이름을 고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대국상 이후 청년들 속에서는 수령님께서 창건해 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청년동맹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자는 청원의 편지가 수없이 제기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청년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청년동맹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어 조선청년운동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실 구상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운동은 수령님에 의해 개척되고 수령님의 영도 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왔습니다. 조선 청년운동의 자랑찬 역사는 곧,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역사입니다. 우리 청년운동의 역사적 사명은 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데 있습니다. 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이론은 주체의 사회주의 청년운동의 지침이며 생명선입니다. 사로청의 명칭은 마땅히 수령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청년조직의 명칭으로 개칭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칠 명확한 안을 밝혀주셨을 뿐아니라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의 탄생을 세상에 선포할 청년동맹대표자회의를 소집하도록 가르쳐주시고 회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온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주체85(1996)년 1월 17일,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는 청년동맹에 위대한 태양의 존함을 모시게 되는 역사적인 대표자회의 개막이 선포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표자회의에 몸소 참석하시여 대표들의 토론과 결정서까지 다 들으시고 나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깃발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표자 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주체85(1996)년 1월 20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선포와 관련하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선포는 우리 청년조직을 영원히 수령님의 혁명조직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려는 우리 당의 철석같은 의지와 청년들의 확고한 결심을 엄숙히 선포한 특기할 사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청년동맹의 이름에 모신 것은 모든 동맹조직들과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며 당이 안겨준 가장 높은 표창이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당의 영도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생명선이라고 하시면서 청년동맹이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 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표시 하셨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청년동맹의 이름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지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선포됨으로써 주체의 청년운동 발전의 연대기에 특기할 이정표가 아로새겨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청년동맹을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라고 하시면서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청소년들을 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준비시키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1월 3일,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 하여 그들이 우리 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800만의 청소년들이 우리 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철저히 준비시키면 무서울 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후에도 주체84(1995) 1월 11일, 청소년들을 800만의 총폭탄으로 준비시키는데서 청년동맹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뒤이어 4월 8일, 또다시 청년동맹에서 청소년들을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 짜고들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안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청소년들을 800만의 총폭탄으로 준비시키는데 모를 막고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주체84(1995)년 1월 17일, 중앙과 도, 시, 군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위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기 위한 청년일꾼들의 맹세모임이 일제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 2월 7일부터 인민문화궁전에서 전국 청년일군대강습이 진행 되였습니다. 이 맹세모임과 대강습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을 한 계단 끌어올리며 청소년들을 800만의 총폭탄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청소년 교양사업에 있어서 일대고조를 일으키는 계기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800만의 청소년들을 총폭탄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청소년 교양사업을 끝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시면서 청년영웅, 총폭탄영웅들을 내세우고 그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고 방패가 된 리수복과 길영조를 비롯한 영웅전사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전형이며 참다운 본보기들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7월 19일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방침을 통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공화국 영웅들과 특출한 위훈을 세운 영웅들, 그리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고 고귀한 생을 마친 우리 시대의 영웅전사들이 다니던 학교들에 영웅의 이름을 달아주고 반신상을 세울데 대한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40여개의 고등중학교, 인민학교들이 영웅들의 이름을 다고 새롭게 명명 되였으며, 많은 학교들에 영웅들의 모습을 형상한 반신상이 건립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학교들에서 자기 군, 자기 학교 출신들의 영웅을 소개하는 영웅게시판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을 교양하며 ≪리수복과 나≫, ≪김광철과 나≫라는 주제 밑에 토론회와 글짓기, 시낭송모임을 널리 조직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을 깊이 심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청소년들을 800만의 총폭탄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은 청년영웅, 총폭탄영웅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으로 심화되면서 줄기차게 벌어졌습니다.

하여,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이 가일층 심화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들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 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더욱 단련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숭배심을 지니고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일념에 불타는 800만의 총폭탄 대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또한, 청년들은 조국의 미래이고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큰 일을 해놓을 때마다 조국은 영원히 청년들의 위훈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이 혁명의 대를 굿굿이 이어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믿음을 안고 그이의 부름심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서 관철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의 행군시기 평양-남포 사이의 청년영웅도로건설에서 세운 청년건설자들의 위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새긴 청년건설자들은 겹쌓이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충성의 결사전을 벌려 2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백여리의 현대적인 고속도로인 청년영웅도로를 보란듯이 건설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세상사람을 놀래였습니다. 주체89(2000)년 11월 13일, 완공된 청년영웅도로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 세웠다고 거듭 치하해 주시고 나서 청년들은 당의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계승자,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온 나라 청년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에 새기고 용기백배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온 나라 청년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에 새기고 용기백배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청년중시사상을 펼치시고 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워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청년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 자폭영웅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이름 떨치고 있으며 조국과 더불어 만대에 길이 빛날 위훈의 창조자로 자랑 떨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광범한 대중이 사회주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 실전사용 가능한 핵무기 추진

MAD는 냉전시대 미.소 핵전략의 핵심 개념이다. 가공할 파괴력의 핵탄두를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탓에 역설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논리다. 반핵론자 입장에서는 그 이름만큼이나 ≪정신나간(MAD)≫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지구 전체의 공멸이 불을 보듯 뻔한데 핵전면전을 일으킬 미치광이는 없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9.11 이후 미국의 이러한 핵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십 명에 불과한 테러리스트들이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고 펜타곤을 타격하는데 일만여 개에 이르는 미국의 핵탄두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파괴력이 워낙 가공스러웠기에 역설적으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잠입해 들어오는 테러범들에게는 전혀 억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

미 조야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미 국방부 산하 연구단체인 ≪국립공공정책연구소≫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핵무기의 개발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미국은 요새화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소규모의 정밀유도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소형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상목표물로 생화학무기의 지하생산기지나 테러범의 은신요새 등을 들고 있다는 것.

최근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이란과 함께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의 생산국이자 불량국가 중 하나로서 이북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전쟁억지수단이 아니라 실전에서 명백하게 사용할 의도를 가진 핵무기를 이북에도 겨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확인이라도 하듯 9일자 LA타임스는 미 국방부의 비밀보고서를 인용, 부시행정부가 이북, 중국, 러시아 등 7개국을 가상 적국으로 한 전술핵공격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와이어드≫에 따르면 지난 여름 존 워너와 웨인 앨러드 상원의원은 5킬로톤 이하의 핵탄두 생산을 금한 지난 1994년의 의회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한 바 있다. 두 의원의 제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들은 에너지부가 저강도 핵무기의 연구를 지속할 것을 제안하는 명령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정작 핵무기 개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과학자들로부터는 반감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금까지 가공할 핵무기를 수도 없이 만들어 왔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 탓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실전에서 실제로 사용할 의도를 지닌 소형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금기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냉전시대의 전략핵무기를 감축하는데는 적극적이면서 반대로 소규모 전술핵무기의 개발을 옹호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고수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생각할 수 없는 가설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도 가능성으로 바뀌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Los Angeles Times
latimes.com
SEARCH
Home | Register | Home Delivery | Site Map | Archives | Print Edition
MARKETPLACE
CLASSIFIED
• Careers
• Cars
• Homes
• Rentals
• Newspaper Ads
calendarlive
Arts & Entertainment
Movies, Music, TV, Dining
The World
The Nation
California / Local
Business
Politics
Sports
Technology
Travel
Editorials, Op-Ed
Sections
Arts & Entertainment
Books
Columns
Saturday, March 9, 2002
U.S. Works Up Plan for Using Nuclear Arms
Administration, in a secret report, calls for a strategy against at least seven nations: China, Russia, Iraq, Iran, North Korea, Libya and Syria.
Commentary: Planning the Unthinkable
Options weighed include use of nukes in future Israeli-Arab conflict and in bunker-busters.
Major Hurdles for U.S. in Rugged Border Province
Geography and warlord rivalries hobble the hunt for Al Qaeda. Above, Kamal and Wazir Khan, who control part of Afghanistan's Paktia province with a third sibling, Bacha. (LAT)
• Purple Hearts for 6 U.S. Wounded
• Northern Alliance Treks South
Mideast Violence Escalates
TOMORROW'S LAT: Bombing near Ariel Sharon's residence keeps region on the boil.
Gaps Remain in 9/11 Probe
TOMORROW'S LAT: Most success involves preventing attacks outside U.S.

미국의 핵공격 준비를 첫보도한 LA 타임즈 9일자(미국시간) 홈페이지 화면

민경진기자
오마이뉴스 2002/03/09

경찰 조계사 진입 발전노조원 연행

발전노조가 14일째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조계사에 진입한 일부 발전노조원 200여 명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 동안 ≪산개 투쟁≫을 전개해온 5000여 명의 발전노조원들은 조계사에 집결해 이날 지도부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다시 흩어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이날 상황을 미리 알고 조계사 경내로 진입해 법당에 앉아 있던 전영기 씨 등 7명을 연행했다.

조계사 경내에 남아 있는 노조원들은 오후 6시경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경찰은 조계사 앞길 등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일부 노조원 가족들은 경찰의 봉쇄망을 뚫고 조계사 경내로 들어가 보름만에 ≪상봉≫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또 조계사 경내 곳곳에 배치된 사복경찰들과 노조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목격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묘공원에서 ≪발전소 민영화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공공연맹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진 2000여 명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행사를 마친 뒤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다가 발전노조원들의 상황을 전해듣고 조계사 앞쪽으로 집결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조계사 밖에 결집하고 있는 민주노총 노조원과 발전 노조원 가족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5-6살의 아이와 가족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방패에 찍혀 인근 병원에 실려갔다.

김시연기자
오마이뉴스 2002/03/10

반인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

수지김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던 반인륜적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지만, 공소시효만료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권사회단체들이 8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명동 천주교 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수 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삼청교육대, 중앙정보부에 의한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 등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 · 은폐되었던 사건들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동석했다.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의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15년간 간첩의 가족이라는 누명속에서 살왔던 고 김옥분(수지김)씨의 동생 김옥임씨는 ≪자국 국민에게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정치권력의 희생량으로 만드는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겠냐≫며 정부에 대한 분노를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김옥임씨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김옥경씨(수지 김의 언니)는 ≪범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84년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박영두씨의 형 박영준씨도 ≪범행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여전히 현직에서 근무, 심지어는 보안과장이라는 직위까지 올라 잘 살고 있다≫며 ≪17년이 아닌 1백 7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제연합은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의 하나라고 규정, 이와 관련,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1970년 발효했으나, 대한 민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관련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소시효 배제 입법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4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명동성당과 대학로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08

삼청교육대

지역주의 정권 탄생되면 깡패 미국에 의한 전쟁 막을 수 없다

≪냉전성역 허물기≫ 나선 강정구 동국대 교수(인터뷰)

진보적 학자이자 통일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강정구 교수. 작년 8・15 평양 행사 때 만경대에서 방문록을 작성한 것이 보수족벌 언론에 빌미를 제공해 큰 고초를 겪은 주인공이다. 28일 그가 부시대통령 방한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민족자주, 통일의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 교수는 최근의 김용갑 의원의 ≪좌파정권 재창출 불가≫ 발언,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 무산 등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 제2의 독립선언이 필요하다 할 정도로 민족자주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자유권을 중요시한다. 자유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권만 얘기한다. 자유권의 단위를 확대해 집단의 자유권을 보자. 학생의 자율권, 노동자의 자유권, 더 나아가 나라의 자주권, 주권이 있다. 개인의 자유권은 신성시하면서 왜 나라의 주권이나 자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둔감하냐?

작년 3월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두 가지 일이 있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선언을 남북이 거의 합의를 해서 2차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할 예정이었다. 작년 외교통상부나 통일부 등 부처별 시정목표에서도 이를 제시하고 언론에 밝혔다. 그런데 (김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부시를 만나고 나서 그 이튿날 당장 ≪한반도 평화선언하지 않겠다. 남북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선언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이게 무슨 자주권이고, 주권이냐. 외교에 있어 자주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두 번째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러정상회담이 있었다. 구소련과 미국이 맺은 ABM조약은 계속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주외교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금자탑이라고 본다.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했는가? 실제로 다섯 문장을 보내 번복하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세 개는 그대로 썼고, 두 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입장을 밝혔다. 한러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바꾸라고 문장까지 써서 보내는 미국의 오만 방자함에 대해 문제제기를 언론이나 정부가 제대로 했는가? 국제정치학을 한다는 지식인들도 마찬가지다. 분통이 터지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 미국 땅에 가서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온 게 누구냐는 것이다. 미국의 오만한 패권적 문제와 거기에 순응하는 이 정권, 더 나아가 이런 것을 문제제기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친미사대주의자들. 이런 것을 볼 때 무슨 자주권이 있고, 주권행사를 하고 있는가?

◎ 학자와 통일운동가 입장에서 보실 때 민족자주권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자주권 행사를 못했을 경우에 우리의 죽고사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다. 94년 6월 전쟁위기를 보자. 김영삼 대통령이 한겨레와 대담한 내용을 보면, ≪부랴부랴 밤에 클린턴에게 전화를 걸어 32분 동안 싸웠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분석한 자료, 책들을 보면 ≪한국이 반대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분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일보직전의 전쟁위기≫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몇 %나 되는가? 죽고사는 문제를 우리 국민의 1%도 알지 못했다. 전쟁국면에 들어가면 대통령이나 우리 정치계가 전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 민족의 자주를 위해서는 통일을 향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금강산 남북공동 새해맞이 행사가 무산됐습니다.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통일연대 사람들을 40여명이나 불참시킨 것은 6.15 공동정신 위배이다. ≪악의 축≫ 발언으로 인해 이북이 최고로 긴장한 상태다. 북쪽은 바로 미국 전쟁의 표적이다.

남쪽이 이 행사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통일연대 사람들을 잘라버렸다. 북쪽에서 봤을 때 남쪽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원인제공에 남쪽 정부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북쪽도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나 전쟁책동에 대해 남한 정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민간 사이에서 협력을 강화시켜 정부를 압박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합의나 행사는 예정대로 치렀어야 한다. 1차적인 책임은 남측정부, 통일부에 있지만 2차적으로 북측 정부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 ≪냉전성역≫이란 무엇입니까?

≪이북정권은 정통성이 하나도 없다, 남한정권이 전적으로 정통성이 있다. 한국전쟁은 50년 6월 이북괴뢰의 침략전쟁이다.≫는 거다. ≪통일시도다≫ 이런 말 절대 허용 안 된다. 표준 정답이 있는 거다. 냉전 성역이란 해방 이후사에 있어 누구도 감히 표준정답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 낼 수 없는, 터부시되는 영역이 있다. 반공이데올로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 냉전성역을 허물어야만 세계사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우리 통일시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 지식인들이 못 나서는 건 국가보안법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국보법 개폐 문제를 이 정권 안에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안되고 있는 일은 통탄할 일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때문에 지식인들이 침체되어 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보다 많은 지식인들이 국가보안법에도 불구하고, 냉전성역을 허물어야 한다는 요구에 충실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면 개정이나 폐지의 요구가 엄청 더 거세질 것이다. 지식인들의 용기가 부족하다.

◎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부시 방문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가 있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고,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형식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게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느냐 따지면 높게 평가할 수 없겠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악의 축≫이나 전쟁을 바로 벌일 것 같은 기세를 누그러뜨린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정부가 힘이 있어 전쟁위협을 감소시킨 것인가? 천만의 말이다. 우리 국민이, 6백개가 되는 단체들이 반미・반전운동을 펼치면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F-15K도 강매를 안 당했고, 전쟁위험도 수그러지게 만들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나 전쟁위험이 재연되는 건 뻔한 일이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죽고사는 문제를 갖고 주인행세를 하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

◎ 오늘 신문을 보면 정부가 대북역할분담론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김대중정부가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나마 대북포용정책이다. 임기 1년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역할분담론≫ 조차 포기한다면 도대체 역사에 남을 게 없다. 김대통령은 홀가분한 입장에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행하는데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민족적 차원에서 자주적 입장을 분명히 가졌을 때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서 자주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엄청난 민족사의 공헌이다.

◎ 덧붙여 대미외교정책과 관련 야당 이회창 총재와 여당 대권주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합니다.

내가 작년부터 ≪한반도 전쟁위기가 2003년에는 도래한다≫고 얘기해 왔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한나라당이나 이회창, 이인제씨가 미국에 그대로 순응하는 정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까지 방치할 사람이 아니다. 전쟁에 관해서 우려를 너무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고 했다. 나는 ≪참 순진하다≫ 그랬다.

전쟁이란 이미 전쟁 국면에 들어가면 누구도 못 막는다. 그 예가 바로 94년 6월 위기와 서해교전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집권을 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 있다.

차기정권의 자격은 최소한 남북관계나 세계사적 흐름을 1년 이상 내다보면서 잘못해 전쟁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조기에 차단시킬 수 있는 예지와 역량을 갖춘 정권이어야 한다. 이런 정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미국의 지배적 패권주의, 깡패 패권주의에 의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데 차기정권이 지역주의에 의해 정권을 탄생시킨다는 건 한심한 일이다. 죽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한가하게 경상도니 전라도니 강원도니 충청도니 이런 생각만 하는 지역주의자들, 그걸 악용하는 정치인들은 준엄한 민족사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답방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언론의 분석이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방해에 의한 전력지원 무산이 큰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답방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시 정권 초기 때에는 그게 중요한 이유였다.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베를린선언이 있었다. 정부 차원의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경제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었다. 남쪽이 선언까지 해 놓고, 북쪽이 가장 원하는 전력을 못 준다(거기엔 미국의 분명한 개입이 있었다) 하니까 그게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9・11 테러 이후 부시가 북쪽에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 조폭 수준의 요구를 북쪽에 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라는 요구 – 남쪽도 80% 이상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고, 주한미군, 잠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도 – 는 미국이 좋아하는 상호주의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이야기이다. 이북에 비해 300배나 넘는 무력을 가진 미국과 10배가 넘는 한국이 이북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이성이 없는 짓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위원장이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2차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이나 군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과연 **김정일**위원장이 무리하게 답방한다고 해서 그걸 기대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

◎ 미국의 책임이 큰데도 자꾸 미국은 이북에 책임을 넘기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언론이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고 심화시키는 반민족적인 일을 주류언론이 하고 있다.

◎ 끝으로 사적인 질문입니다만 작년 일부 언론이 규정한 ≪만경대 파문≫으로 큰 고초를 겪으셨는데 항변이랄까요. 한 말씀 부탁합니다.

(강 교수는 한숨을 깊이 들이 쉬었다) 냉전세력의 너무나도 큰 힘을 절감했다. 이 세력의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그 힘 때문이라도 내가 학문적 좌표로 설정한 ≪냉전성역 허물기≫를 더욱 열심히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도 그 일에 충실할 것이다.

민족민주진영도 선거대응에 만전을 기하자

선거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다. 제도권 언론들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거의가 보수정당의 후보자들이다. 분단시대의 그 어느 한시기도 진보인물이 제도권 언론에 우호적으로 소개된 역사가 없다. 지난 총선에도 제도권 언론들은 선거가 마감된 후에야 민주노동당의 낙선문제들을 다뤄주는 정도였다.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 볼 때 민중의 정치세력화에는 장애물들이 많았다. 민중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도 민중들이 제도권 정치무대에 진출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중들은 선거법을 비롯하여 보수언론들의 횡포, 기득권세력들의 텃새 등으로 정치 판에 뛰어 들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는 것이 지난 시기의 조건들이었다.

여기에는 또 민중들 자신들의 의식문제도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했었다. 정치 판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아예 정치하는 곳에는 민중들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민중들은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세력이 있는 것으로만 착각한데서도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민중들은 정치인들을 혐오할 뿐 그 정치무대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민중들의 정치세력화가 지연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어떤 민중들은 정치혐오증 때문에 ≪선거 거부≫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현상들도 없지 않았다. 보수정객들은 이러한 사회현상들을 십분 이용하여 자기들의 독무대로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 진보세력들은 정치의 중요성을 느껴 제도권 정치바닥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이들이 몸담아야 할 정당들은 모두가 보수정당들이다. 이들이 가졌던 당초의 꿈은 이 보수정당 내에서는 도저히 꽃피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되었다. 게다가 이들이 보수정당에 진입할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민족민주운동진영과는 거의 인연들을 끊고 활동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들의 정치계 진출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런가하면 그 중에는 명색이 과거 운동권 출신 의원인데 지금은 수구세력의 앞잡이 역할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나머지 민주노동당이 탄생되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 만들어 진 정당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과거의 진보정당들과 다른 점이다. 지금 진보진영 세력은 2016년을 집권의 시기로 보고 오늘을 뛰고 있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이 지반을 넓혀 나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대중들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진보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포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에 진보진영세력들은 유권자들의 표밭에 진보의 씨를 뿌려야 할 것이다. 얼마나 넓게 그리고 깊게 뿌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금년의 대선과 지자제선거가 민중세력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런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다가 올 2004년의 총선에서 교두보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 총선에서 정당 내 영향력 있는 진보정당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한 실험대가 되는 중대한 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어느 진보정당에도 비교해 볼 때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전국연합, 한총련 등의 민족민주세력들은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자각하게되었다. 이들은 또 보수정당들을 통해서는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는 뼈저린 체험들도 맛보게 되었다. 그래서 민중들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과거처럼 보수정당의 아무개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지지론≫을 전개한다면 그것은 한낱 진보정치 세력화를 지연할 따름이다. 오로지 진보정당의 깃발을 추켜들고 전역에 산재한 표밭에 진보의 씨를 부릴 때만 그 씨앗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앞으로 진보정치 영역은 날이 갈수록 그 폭은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한반도 정세와 함께 남한사회의 분위기는 미국에 대한 불신의 수위가 날을 따라 상승하고 있어 얼마 가지 않아 주한미군의 존재는 약화 일로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한의 기존정치세력은 이 것을 받치고 있는 지뢰대 역할을 해 온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쇠퇴의 길로 접어 들것으로 보인다. 외세의 영향력이 감퇴된다는 것은 곧 민주노동당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과 반비례한다는 원리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진보 정당의 미래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확대되고 재생산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쳐 준비되기도 전에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성숙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때문에 선거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주시하다 시피 기존의 보수정당들 내부에는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당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양심적인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정치인들을 수용할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존 보수정당들에 대한 불신의 골은 그 어느 때 보다 깊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기존정치인들에 대해 식상한 나머지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기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민족민주진영은 향후 전개될 선거들에 대한 대응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2년 3월4일
민족통신 편집인

금년 대선과 지자제선거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금년에 있을 대선의 방향은 과거에 비해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좌우하는 몇가지 변수들이 지난 대선에 비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남한사회에서 그 동안 대선을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들로 꼽는 다면 ≪미국의 영향력≫을 포함하여 ≪남북의 관계≫, ≪보수정당들의 분열상≫, ≪국민들의 정서≫, ≪진보정당의 주체역량≫ 등이 과거에 비해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은 권력의 재편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남한의 권력 재배치는 미국의 식민지구조와 그 영향력에 의해 미국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변수가 가장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이들의 추종세력인 사대매국적 정치인들의 농간에 따라 이뤄졌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중들의 힘이 커지는 조건에서 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의도대로만 되지 않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선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미국의 변수가 민족민주진여의 헌신적 노력으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 변수는 놀랄만하게 변화됐다. 역대 집권자들은 대선기간과 집권기간동안 전민족적인 최대관심사인 통일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아무리 미국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게 지난 역사의 발자취였다. 통일문제를 간과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여도 그의 집권은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하나는 알고 있는데 둘은 모르고 있다. 그는 미국에 아첨아부하고 있으나 남북관계가 대선이나 집권시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하며 반민족 반통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는 정치의 초보지식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보수정당들의 구성원들이나 지도자들은 철학도 없고 미래를 제시하는 희망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한마디로 분열과 싸움의 연속이다. 먹걸이를 놓고 서로 피투성이로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후보들의 분열상도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의 정서도 중요한 변수중 하나이다. 지금 국민들은 기존보수 정당과 정치인들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숨과 분노로 정치계를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들의 왜곡과 횡포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한계가 있는 형편이다.

이제 문제는 ≪진보정당의 주체역량≫이다. 민족민주진영 세력들의 일부는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기로 하여 과거에 비해 진일보 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그 범위와 폭은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들 뿐 만 아니라 미국세력에 기생하여 반통일의 길을 가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을 제외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망라하는 정당으로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6.15 선언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인맥들이라면 그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광범위한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미래의 수권정당으로서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진보세력들은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는 한편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대선과 지자제운동)에도 이기주의적인 자세를 초월하여 동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2002년 3월4일
민족통신 편집인

반전반미투쟁과 6.15실천투쟁의 결합에 대하여 (2)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0호)

≪부시가 오면 전쟁 터진다.
호전광부시의 방한을 저지시키자!
동족불화, 동족대결의 씨뿌리는 부시의 행각
절대반대!
미국은 대북강경압살정책 즉각 그만두라!
민족공멸 자초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
결사배격하자!
세계제패 겨냥한 부시의 반테러전쟁확대 반대한다!
군수독점재벌 배불리고 겨레 죽이는
미국의 무기강매책동 박살내자!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미국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 방해말라!
미국은 내정간섭에 손을 떼라!
미국은 양민학살진상규명하고 사죄보상하라!
강점자 약탈자 주한미군은 물러가라!
양키와 공조말고 민족공조 실현하자!≫
(당면투쟁구호,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2002 1 31)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와 자주통일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대전환이 일어났다.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대결에서 화해에로, 냉전에서 평화에로, 분단에서 통일에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것은 50여년 분단사에 일찍이 없었던 우리 민족사의 쾌거였으며 지구촌의 공동경사였다. 그러나 1년전 1월 20일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6.15공동선언의 이행에는 제동이 걸리고 북미대화와 함께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한반도에는 냉전의 기류가 다시금 밀려들게 되었다. 그 주범인 부시는 워싱턴에서 ≪악의 축≫이라는 독설로 불집을 만들어놓고 전쟁화약내를 풍기며 서울에 기여든다고 한다. 우리 민중은 이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여 부시를 ≪악의 왕초≫로 규정하고 그의 머리위에 철추를 내릴 반미반부시투쟁에 과감히 일떠서고 있다.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온 민중, 온 겨레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부시의 서울행각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앞길에 차단봉을 가로질러온 그의 집권 1년간의 죄악상을 고발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북미관계를 뒤집어놓은 죄악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분단사에 자주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 민족의 통일좌표인 6.15공동선언이 이행되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이 땅에 언론들이 쓴 것처럼 ≪미국은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유보해왔으며≫(조선일보, 2001년 6월 8일), ≪미국은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유보해왔으며 부시행정부는 6.15공동선언을 무산시키려는 저의를 드러내놓기 시작했다.≫(말, 2001년 7월)

내신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까밝히고 있다.

≪부시는 한반도에서 6.15공동선언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적을 만들고 위기의식을 높임으로써 방위산업계 친구들에게 약속한 신종무기판매를 합리화하고 부유한 공화당측근들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할수 있기 때문이다.≫(부산일보, 2001년 5월 3일)

≪부시팀은 6.15공동선언이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러쪽에 치우치는 통일로 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자기 세력권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한겨레, 2001년 6월 12일)

≪그러므로 부시행정부는 출범하자부터 북미관계를 차단하는 것으로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부시행정부는 북의 외무성대변인이 지난해 10월 24일자 성명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권을 인계받기 바쁘게 모든 것을 뒤집어엎었다.≫(민족21, 2002년 1월)

그것이 바로 3대 뒤집기작전인 ≪북미정상회담뒤집기≫, ≪북미기본합의문뒤집기≫, ≪북미협상뒤집기≫ 작전들이였다. 이 3대 뒤집기작전은 우리 민족의 통일대사를 망치기 위한 것이였다.

첫째, 북미정상회담뒤집기

북미사이에는 2000년 10월 이북특사의 방미와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의 방북에 뒤이어 클린턴의 평양방문이 예견되고 이를 계기로 평양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는 북의 미사일뿐 아니라 한반도평화체제와 북미간의 완전한 관계개선문제를 일괄타결하기로 합의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6.15공동선언이 마련되어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에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정상화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에서는 55년동안 지속되어오던 냉전체제가 일소에 해체되고 우리 민족앞에는 평화와 통일의 대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클린턴의 방북은 돌연 취소되었다. 그의 방북행을 가로막아나선 것이 바로 부시와 그의 패거리들이였다.

부시는 지난해 12월 19일 클린턴과 정권인계인수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북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북미사이의 최대현안인 이북미사일문제해결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한다고 강요하였으며 이보다 하루앞서 상원 원내총무와 하원의장 등 11명의 공화당의원패거리들은 클린턴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무분별한 이북과의 협상타결은 없는 것만 못하다고 줴치면서 방북취소를 강박해 나섰다.≫(동아일보, 2000년 12월 19일, 12월 29일, 12월 30일)

부시와 그 일당의 북미정상회담뒤집기작전으로 북미관계는 전면해결의 고지에서 적대적인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6.15공동선언으로 화해국면에로 들어서게 되었던 남북관계도 경색국면에로 환원하게 되었다.

둘째, 북미기본합의문뒤집기

≪북의 핵문제는 1994년에 영변핵위기를 계기로 1년반동안의 공방끝에 체결된 동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로 완결되었다.≫(말, 2001년 7월)

≪그런데 출범하기 전부터 제네바합의는 이북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떠들어온 부시는≫(동아일보 2001년 1월 18일)

≪제네바합의는 이북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떠들어온 부시는 백악관에 들어앉자 북미기본합의문의 전면적 재검토문제까지 끄집어내여 그것을 백지화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뉴코리아타임스, 2001년 6월 23일)

≪부시행정부는 북에 건설해주기로 한 원자력발전소의 완공단계에 가서 북의 핵사찰을 하기로 된 것을 당장 해야 하며 경수로에서도 플루토늄을 추출할수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로 바꿔야한다고 들고나왔다. 이것은 내외여론이 지적한 것처럼 제네바합의를 뒤집기 위한 억지였다.≫(동아일보, 2001년 1월 18일)

셋째, 북미협상뒤집기

≪북은 미국에서 새 정권이 출범하자 북미관계발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클린턴정부때의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시는 백악관에 입성하자 이북과의 관계를 전면재검토할 것이라는 폭언을 연발하면서≫(경향신문, 2001년 3월 15일)

≪그러나 부시는 백악관에 입성하자 이북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폭언을 연발하면서 기존의 관계개선지향적인 북미협상틀거리를 전면 뒤집어엎었다. 내외여론은 부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신의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클린턴행정부때와는 다를 것임을 밝힌 사실을 놓고 이것은 선임행정부와는 달리 힘의 과시를 통한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강경정책에로의 선회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한겨레, 2001년 3월 9일)

≪파월국무장관은 백악관에 발을 들여놓기 3일전인 지난해 1월 17일에 ≪우리는 이북과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북과의 어떤 협상도 그 이행여부를 우리가 반드시 검증, 감시할수 있어야 한다. 이북이 미사일개발과 수출을 중단하고 재래식, 비재래식위협을 모두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측에 아무 것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독설을 뱉어놓은바 있다.≫(조선일보, 2001년 1월 19일)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팀들은 앞을 다투어 북과의 대화재개를 위해서는 대북감시 및 검증체제가 필요하다느니(파월국무장관), 이북과의 협상의제에는 핵이나 미사일외에 재래식무기도 포함되어야 한다느니(라이스백악관안보보좌관)하면서 강경론을 폈다.≫(한겨레 2001년 12월 7일)

≪지난해 6월 6일 근 5개월간의 정책검토를 걸쳐 발표된 부시의 대북정책성명은 이미 강경파들에 의해 거론되어온 핵과 미사일, 재래식무기문제를 묶어서 협상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 검증체제하에서만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며 이 세가지 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정치경제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한겨레 2001년 6월 8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대화거부성명이고 북미관계개선 부정성명이였다. 워싱턴의 한반도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성명은 북과의 대화기피로 남북간의 대화를 막고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차단하는 것으로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막기 위한 하나의 요식성명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를 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한겨레 2001년 6월 8일)

2. 남북화합을 차단해온 죄악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하나로 이어져가던 민족의 혈맥이 다시 단절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남북간의 화해와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교류와 협력이 무산되고 왕래와 상봉이 두절되게 되었다. 부시행정부는 미국과 한국간의 수직관계를 이용하여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사사건건 훼방을 놓아왔다.≫(동아일보, 2001년 8월 2일)

첫째 남북대화 가로막기

지난해 4월 7일에 부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신은 이북을 잘못 보고 있다. 이북은 믿을수 없다.≫(뉴욕타임스, 2001년 3월 8일)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문제에서는 불투명한 점이 많다. 클린턴정권은 6년간 속아왔다. 우리 정권은 속지 않을 것이다.≫(신동아, 2001년 4월)

≪우리 정권은 속지 않을 것이다는 위압적인 말로 김대중을 면박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사전협의없이 6.15공동선언에 서명한데 대해 강하게 추궁하면서 고작 54세밖에 안되는 부시가 당년 77세라는 김대중을 보고

≪이 사람≫, ≪이 양반≫하며 하대하고 경멸하였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진전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조절하며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을 정치군사협상은 물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까지 포함하여 관계마다 미국의 승인밑에 할 것을 강박했다.≫(뉴코리아타임스, 2001년 5월 5일)

이것은 남북관계개선에로 나아가는 남북대화에 발목을 잡아 매놓기 위한 것이였다.

남북간의 대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부시행정부는 9.11사건을 계기로 남한당국을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게 하고 남쪽에 미국의 기동무력을 투입함으로써 남북간의 장관급회담을 단절시켜버렸다. 한국의 언론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시행정부의 훼방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11월에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남측이 취한 비상경계태세가 쟁점이 돼 아무런 결실도 없이 결렬되었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북대화의 발목을 다시 잡은 것이다.≫(민족21, 2002년 1월)

≪이번에 한미연합군에 비상경계령이 발동되고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게 된 것 때문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결렬되었다. 이번 비상경계령발동사실에서 드러난 것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책동의 주범이 부시정권이라는 사실이다.≫(민, 2002년 1월)

둘째, 남북협력 가로막기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민족내부문제이지 대양건너 미국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미국은 상호주의와 검증을 원칙으로 북을 반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중단시키려하는데 한국이 이북에 퍼주고 앞서나가면 공조가 되느냐.≫(동아일보, 2001년 1월 29일)고 강박해나섰다.

≪부시행정부는 남이 북에 전기를 주면 핵사찰카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된다, 386컴퓨터도 여러대 연결하면 군사용으로 전용될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화학비료는 재래식 폭약을 생산할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식량은 군량으로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협력에 돌아가며 ≪노≫딱지를 붙여 발목을 잡았다.≫(동아일보, 2001년 1월 20일, 민, 2001년 8월)

부시행정부는 지난 1월 2일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관리규정을 수정해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나라들에 대한 고성능 컴퓨터수출은 완화하는 반면 북을 비롯한 테러지원국의 딱지를 붙여놓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컴퓨터반출금지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부시행정부는 이회창을 비롯한 한국의 친미보수패거리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대북퍼주기론을 외쳐대게 했다. 이들은 지금 군전력증강5개년계획기간에 무려 30조원의 혈세를 동족대결용 무기구입비로, 미군산복합체에 퍼넣기로한 진짜 퍼주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남북공조보다 한미공조를 우선시하는 부시의 사냥개노릇을 하고 있다.

셋째, 남북왕래 가로막기

≪부시행정부는 남북간의 왕래와 혈육간의 상봉까지 가로막아 나섰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명산이고 경의선은 우리 민족의 대동맥이다. 그런데 부시같은 대양건너 깡패들이 나서서 금강산관광은 관광료가 군사비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가로막아 나서고 경의선복원은 지뢰를 해체해야하기 때문에 북의 전차(탱크)들이 쳐나올수 있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고 남북간의 접촉과 왕래는 민족주의기류를 확산시킬수 있다고 보면서 달가와하지 않고 있다.≫(산케이신문 2001년 2월 2일, 민 2001년 1월)

부시행정부가 이처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아나서며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이전의 대결원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한반도를 냉전의 기류속에 몰아넣고 무기시장을 확대하여 심각한 불황에 처한 미국경제를 살려내며 한반도를 군사적 패권주의의 시험장으로 써먹으려는데 있다. 미국을 위해 우리 민족의 화해와 대화를 가로막아 나서고 혈육간의 왕래와 상봉까지 차단하고 있는 부시야말로 민족배타주의가 골수에까지 밴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3. 전쟁위기를 몰아온 죄악

6.15공동선언으로 화해와 완화의 난류가 흐르던 한반도에는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냉전의 한류가 밀려들게 되었다.

. . .

2월 19일 부시의 서울행각은 이것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실전에로 넘어가기 위한 전쟁행각이다. 이것은 미국이 패권적 세계전략을 위해 남과 북의 우리 민족 모두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멸살하려는 대범죄전이다. 부시야말로 테러의 두목이고 악마의 화신이며 전쟁깡패이다.

모든 사실은 부시행정부가 선임정권과는 다르게 한반도문제를 힘으로 낙착짓기로 했다는 것을 실증하여준다. 우리 민중은 부시의 서울행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고 이 땅에서 민족공멸을 가져올 전쟁의 불꽃이 튕기는 것을 방관시할수 없다.

바야흐로 반세기이상 미국때문에 민족분단의 재난속에서 민족자주권과 존엄을 짓밟히고 뼈와 살점을 뜯기우며 수난민으로 살아온 우리 민중이 미국과 총결산을 지을 때가 왔다. 우리 민중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와 함께 부시의 서울행각을 결사반대 배격하는 거족적인 반미반부시투쟁에 분기하여 악의 왕초인 부시에게 준엄한 징벌을 내릴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이 기회에 악의 제국 미국과 총결산을 짓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이 땅에 자주, 평화, 통일을 안아오려는 우리 민중의 정의의 투쟁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시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킨 부시행정부의 죄악백서,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2002 2 13)

(내일 계속)

하나 민족도 하나

조국통일3대헌장

90년대 통일을 위한 전민족단합의 대헌장 (2)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명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어데 있는가에 의해 설명된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60여성상 조국광복과 새 조국 건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령도해오시는 과정에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민족대단결의 경륜이 집대성된 위대한 통일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민족운명개척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라는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반일민족해방투쟁시기에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그 10대강령을 발표하여 전민항쟁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었아며 8.15 후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는 1948년 4월남북련석회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북남합의서를 이루어내시여 조국통일의 앞길을 끊임없이 개척해오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바로 이러한 민족대단결 경륜의 고귀한 경험을 집대성한 불멸의 통일강령으로서 그 생명력의 견지에서 볼 때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맞먹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2 조국광복회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90년대 통일을 목표로 하는 시점에서 나온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30년대 중반기 민족해방을 목표로 제시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비유하는 리유는 한 마디로 말하여 두 강령이 류사한 정세배경속에서 나온 민족의 자주권 실현을 위한 민족단합의 강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정세의 측면을 놓고 볼 때 1936년 당시에 파쑈와 민주, 전쟁과 평화, 침략과 자주의 대결이 치렬하게 벌어진것처럼 오늘도 제국주의 세력과 애국적 민주세력, 전쟁과 평화, 침략과 자주의 대결이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정세의 측면을 놓고보면 1936년 당시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 전쟁준비를 다그치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파쑈통치의 강화로 우리 민족이 민족으로서 존망의 기로에 서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강화, 핵의혹 소동과 같은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우리 민족이 자기 명맥을 이어가는가 못이어가는가 하는 기로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는 당시 로동자, 농민은 물론 청년학생, 지식인, 수공업자, 소상인과 민족자본가 등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반일성전에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오늘의 난국을 헤치고 하나된 조국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민족해방실현을 위한 강령이라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조국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민족해방실현을 위한 강령으로서 다같이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강령인 것이다.

두 강령은 또한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민족대단결 강령으로서 민족적 요구와 함께 계급적 요구도 안고있다면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은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자주권 실현과 관계되는 민족적 요구를 전면에 제기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지만 두 강령은 민족의 자주권 실현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통일강령을 구조적으로 완성하고 통일의 근본방도로서의 민족대단결의 원칙도 최상의 경지에서 완성한 대헌장이다.

어떤 사회적 운동에서든지 강령이라 할 때 그것은 그 운동의 총적 목표와 그 면모, 그것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와 근본방도가 무엇인가를 밝힌 총체적 전략을 의미한다.

(내일 계속)